

군 공항 이전설명서 전남 빼고 광주만 배부

국방부, 전남 이천후보지역민 반발 우려... '반쪽' 정책 비판 무안군, 소음 현장 견학... 의견수렴 외면 반대 여론 키우기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설명 자료를 배포키로 했다. 하지만 전남지역 민 반발을 고려, 광주에만 배부키로 하면서 사실상 '반쪽'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의 경우 올해보다 훨씬 많은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을 내년 사업계획으로 세워놓은 만큼 국방부의 일방통행식 자료 배포가 아닌,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전남도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열린 '군 공항 이전사업 갈등관리협의체 고위급 회의'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작성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무엇이든 물어보

세요'라는 50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이번 주 광주시에 배부키로 했다.

국방부가 지난 5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 자료집을 제작해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려다 전남 지역민들 반발로 잠정 보류했던 후보지 선정 활동을 재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들의 반발로 무안군을 비롯한 전남 지역에는 자료집이 배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간극을 좁히기 위한 활동도 없이 자료집부터 배포하게 되면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남도 공식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정작 이전 후보 지역 주민들이 아닌, 광주지역에만 배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방부가 '반쪽짜리 정책 홍보'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안군을 비롯한 이전 후보지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무안군의 경우 올해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라는 민간 단체에 1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내년에도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재정이 열악한 무안군이 1개 사회단체에만 보조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무안군은 또 올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전투비행장 주변 소음실태 현장 견학'을 내년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2200만원의 예산만 집행했지만 내년에는 3배 이상 많은 7900만원까지 늘려 세웠다.

또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주민강사들을 선발, 400여개 마을을 돌며 '군 공항

이전 저지 강'을 진행하는 '주민주도형 주민강사제'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군 공항 이전 저지에 앞장설 군민 30여명을 주 강사와 보조 강사로 선정, 2인 1조로 나눠 무안군 400여개 마을을 30여차례씩 돌며 군 공항 이전 사업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이전 지역 후보지 주민들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 차를 줄일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는 행보를 취하는 대신, 자료집만 던져놓는 식의 국방부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설명자료만 배부하는 방식으로는 이전 지역 후보지로 거론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더 커질 것"이라며 "국방부가 양측 갈등을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교육청, 학교 친일잔재 175건...청산작업·역사교육

전남지역 학교 169곳에 남아 있는 175건의 석물과 교표 등에서 친일잔재의 흔적이 확인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청산 작업을 마치지 못한 해당 학교에는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예산을 지원해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교 친일잔재 청산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순천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학교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4월부터 전문가가 그들이 참가해 친일잔재를 조사한 결과 도내 169개 학교에서 일제 양식의 각종 석물과 교표, 친일음악가 작곡 교가, 일제식 용어가 포함된 학생 생활 규정 등 175건을 확인했다.

친일 잔재는 일제 양식의 석물 34건과 친일음악가 제작 교가 96건, 학생 생활 규정 33건, 교표(육일기 양식) 12건 등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청산 절차 등을 안내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 청산 작업을 추진했다. 석물 16개가 놓여 있는 현장에는 친일잔재임을 확인하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친일 음악가가 제작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14개 학교는 예산을 지원해 교가를 새로 만들도록 했다. 새 교가는 내년 1~2월 중 열리는 졸업식부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친일 잔재 용어가 포함된 학생 생활 규정 전체를 수정·보완했고 육일기 양식의 교표도 시대에 맞게 수정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대 교육감 중 친일 또는 항일 행적이 뚜렷한 사실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알릴 계획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친일 잔재 청산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역사교과를 갖춘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北 매체, 美 무기구매 비난 "남북합의 위반...권리상실"

북핵 협상의 '연말 시한'에 임박해 한반도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북한 매체는 16일 한미 군당국의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반입 등 한미 군사공조 체제를 문제 삼으며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게재한 '도적이 매를 드는 강도적 궤변'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남조선당국은 인민들의 피땀을 짜낸 돈으로 대양 건너 남의 나라 땅에까지 가서 최신 전략자산들을 무더기로 사들이는가 하면 악마의 무기로 세인이 지탄하는 미국의 생화학무기반입에 대해서도 모르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과 8월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올해만 해도 민족의 화해와 조선반도 평화 흐름에 역행해온 것이 다름 아닌 남조선당국과 군부호전관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잇단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관한 남측의 비난 여론과 관련, "갑히 누구에게 '도발'의 감투를 넘겨줘야 하는가"라며 "남조선당국과 군부 호전관들이 결코 들면서 풍수 없이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위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명분도 체면도 권리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라며 "남조선당국이야말로 북남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합의서의 반쪽짜리 위반자이며 숨길 수 없는 진짜 주범"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지자체 관계자 등이 16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워크숍'에 참석해 일자리위원회와 14개 광역시·도 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14개 시·도, 광주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협약

오늘 워크숍...일자리 지원 방안·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논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과 확산에 힘쓰기로 협약했다.

일자리위원회와 광주시는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워크숍을 열었다.

일자리위원회와 14개 광역자치단체는 이 자리에서 성공적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과 전국 확산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했다.

17일까지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지원 방안,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내용과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조기에 성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른 시일 안에 정부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이주노동자 4명 중 1명 임금 체불...절반 폭행 경험

광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4명 중 1명 가량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2개국 출신 이주 노동자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체불된 임금이 있다'는 응답자는 24.7%, "없다"는 65.6%, 무응답 9.8%였다. 불법체류인 경우(33.3%)가 체류비자를 얻은 경우(23.8%)보다 임금 체불 답변 비율이 높았다. 공장이 공장 외 사업장보다, 3년 미만 근무자가 3년 이상 근무자보다 체불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68.2%는 사업장을 옮겼으며 31.8%는 참고 일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체불임금을 받은 응답자 중 70.7%는 노동청 진정을 거쳤으며 나머지는 사업주와 합의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 노동자의 월급 수준은 180만원 미만 53.7%, 그 이상이 41.8%였다. 근무 중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응답자도 54.5%나 됐다. 남성(56.8%)이 여성(48.0%)보다 피해 비율이 높았으며 불법체류자(72.2%)는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응답자 56.6%는 차별 경험을 털어냈으며 차별을 가하는 사람은 주로 사장, 다른 한국인 노동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산구, 다문화 2853가구 전국 2위... '고려인 마을' 영향

'고려인 마을'이 조성된 광주시 광산구가 전국 시·군·구 가운데 2번째로 다문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다문화 가구는 전년보다 4% 가량 증가했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다문화 가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광주지역 다문화 가구는 6836가구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전남지역 다문화 가구는 1만3342가구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 가구 비중은 광주 1.2%·전남 1.8%로, 전국 평균 다문화 가구 비중(1.6%)을 웃돌았다.

광주 광산구에는 지난해 기준 다문화 가구 수 2853가구로, 제주시(3303 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다. 광산구는 다문화 가구원(8575명)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고 ▲다문화 혼인(198건) 3위 ▲다문화 이혼(94건) 2위 ▲다문화 출생(174명) 3위 등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전남지역에서 다문화 부부의 이혼 건수는 지난해 466건으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11.1%)은 제주(11.5%)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태어난 다문화 출생아 수는 광주 444명·전남 774명으로, 전남지역 총 출생 가운데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6.9%)은 전북(7.7%), 제주(7.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땅 2238㎡ 전원주택 등 적합 7천만원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방 좋은 1억3천
- 서구 마북동 도로점 땅 378㎡ 장기투자에 좋은 대지인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무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일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치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연성리 땅 2648㎡ 주택 좋은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찰·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 건물

- 서석동 조대원 4층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운암동 아파트상가 지하 205㎡ 매인 2억 창고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 1억6천
- 총정로4기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산수동 공무원아파트부근 도로점 땅 305㎡ 건물 519㎡ 5년에 180 임대중 11억
- 농성동 상공회의소 뒤편 소방도점 상가주택 땅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뮤니티 단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뎀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

특급 물건

- 화순군 동면 서성계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원룸·내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9억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광의면) 11050㎡ 대지·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은 6억4천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다세대 적합 은행 6억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요양병원] 부지매매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함
- 숯가마 찜질방 용도
-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함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광주일보

창설 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케이블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윤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안 산 571-7658 ·오 지 266-7601
	·용 통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중 정 222-8171
남구	·남 부 652-0175 ·백 은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양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